

시조 부문

시조 부문



김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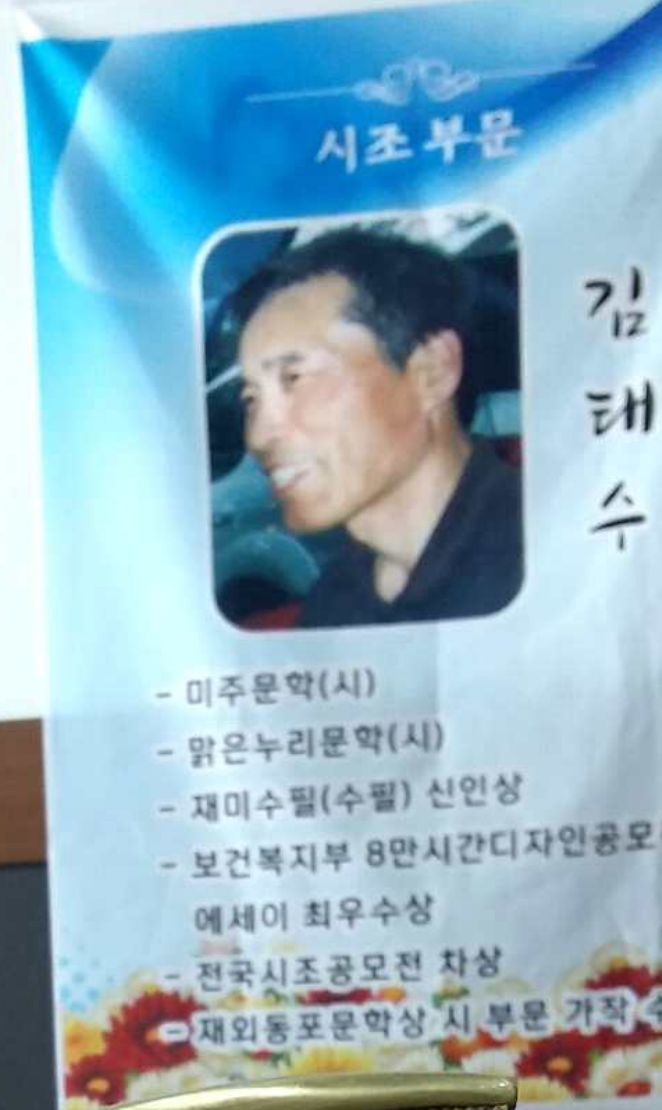
- 미주문학(시)
- 맑은누리문학(시)
- 재미수필(수필) 신인상
- 보건복지부 8만시간디자인공
에세이 최우수상
- 전국시조공모전 차상
-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 가



016. 10. 29(토) 11:00 미당문학관



전북 남원 출
효성여자대



- 미주문학(시)
- 맑은누리문학(시)
- 재미수필(수필) 신인상
- 보건복지부 8만시간디자인공모
- 에세이 최우수상
- 전국시조공모전 차상
-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 가작



賞牌
시조부 당선 김태수
위의 사람은 제1회 미당
문화 신인작품상 시조부에
시조 「독거노인」 외 4편이
당선되어 한국 문단에 시인
으로 등단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16년 10월 29일
미당문화
발행인 김동수

시조 당선작

굴곡진 길 달려와
몸 부린 현 자전거

살 빠져 무른 바퀴
빠른 낡은 안장에

뜨겁게
불태우며 산 저녁놀이 앞는다

진창길
포장도로
오르막
내리막길

날마다 하나 되어
페달을 밟고 풀며

달리며 중심 잡았다
쓰러지지 않으려

세차게 달린 세상
녹슬어 내려앉아

약병을 옆에 두고
거미와 함께 산다

맞물려
굴리며 살다
혼자 남아 수행 중

시 당선작

삶아 내온 감자의
포슬포슬한 서슬이 시리다

아주 오래 전 너와 걸었던 눈길
그 길이 감자 사이로 나 있어
분이 오른 감자를 들여다본다

바람이 시래기소리를 내며
몰려다니던 저물녘
너의 마을이 가까워오고

나무판자가 잦은 기침을 해대던
옛 정미소였던가

스텝 대접의 막걸리에
이 시린 두부 한 접시
신 김치에 찌푸려지던 미간도
미소를 자아내던 그날

갓 삶은 감자 분 같은 눈이
들판을 덮고
나란히 걸어온 발자국을 덮어

지나온 흔적 모두 지워져
나무판자 정미소마저
통유리 건물로 매꾸어진 자리

삶은 감자의 하얀 서슬에서
그날의 눈길이 보랏빛 인다

賞 牌

최우수 당선

김 태 수

위의 시장은 제1회 마당
문화 신인작품상 최우수
시조 「죽거노인」의 4편이
당선되어 한국 문단과 시인
으로 등단하였다.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4년 1월 10일

마 당 문 화

문화부 김 태 수

미당문학 신인 작

2016. 10. 29(토) 11:00 미당문학관 · 미당문학

시 부문



- 전북 남원
- 효성여

시조 부문



- 미주문학(시)
- 맑은누리문학(시)
- 재미수필(수필) 신인상
- 보건복지부 8만시간디자인
- 에세이 최우수상
- 전국시조공모전 차상
- 재외동포문화사 시 부문 가



賞 牌

김태수
시조 부문 제1회 미당
문학 신인작품상 수상
시조 '독거노인, 외로운
당신에게' 장수 장편에 시조
가로 정간(정간)하여 이 상패를
증정합니다.
2016. 10. 29
미 당 문 학
장관 김태수

미당문학 제2호 출판 및 제1회 미당문학 신인 작품상 시상

2016. 10. 29(토) 11:00 미당문학관 · 미당문학회

시 부문



박

- 전북 남원 출생
- 호성여
- 남원 덕

시조 부문



김태수

- 미주문학(시)
- 맑은누리문학(시)
- 재미수필(수필) 신인상
- 보건복지부 8만시간디자인공모전
에세이 최우수상
- 전국시조공모전 차상
-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 가작 수상